<녹 취 문>

과제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김노천		
면담자	강인형	면담지원자	정지선
면담일시	2025. 7. 1.	면담장소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녹취문 작성자	강인형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리드맨트 (00:00:00~00:03:29)

면담자: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그리고 용현동 도시 변화 기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인형입니다. 먼저 본 면담 섭외 받으시고 응해 주시기로 하신 계기나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구술자: 예. 어차피 제가 살던 곳이니까 저도 뭐 내가 아는 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좀 알고 있는 얘기나 그런 거에 대한 아는 것도 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나도 그거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싶고 우리 고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어요.

면담자: 그러시구나. 혹시 고향은 어디신가요?

구술자: 학익동 37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교도소 자리 근처.

면담자: 그러시구나. 그럼 어린 시절은 학익동에서 몇 살까지 지내신 거예요?

구술자: 7살까지, 6살 그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면담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건물이나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거기에 그 교도소 담장이 좀 보였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어리니까 되게 가까운 거리겠죠. 옛날 어렸을 때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이 있는데 모형만 있고 속에는, 그냥 여기 큰 밭 같은 게 있었는데, 밭 가운데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길가에. 근데 거기가, 저기 누가 이거 메꿔놨어?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안에서 들어가서 놀았어요.

면담자: 혹시 어머니께 여쭤보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옛날부터 있었다고. 지금은 없죠. 터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면담자: 그러면 학창시절은 어디서 보내신 거예요?

구술자: 용현동에서.

면담자: 그러면 학익동에서 용현동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초중고 여쭤봐도 될까요?

구술자: 초등학교는 용현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송도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동인천 고등학교.

면담자: 그럼 쭉 거기에서 사신 거네요.

구술자: 예 거기서 살다가 여기 또 재개발되면서 다시 학익동으로 이사 왔죠. 용마루 재개발되면서.

면담자: 맞아요. 동아풍림에 거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그 아파트에 우리 친척들이 많이 지금 살고 계셔서.

면담자: 많으시더라고요. 부락을 일궈서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구술자: 어머님이랑 그리고 와이프, 그 딸 둘, 이렇게.

2.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기억 (00:03:30~00:25:34)

면담자: 혹시 학익동에 7살까지 사셨을 때 동양화학에 대한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구술자: 이렇게 뭐 그냥 큰 공장이 있었던 거 알지 뭐. 거기 잘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동양화학 쪽을 통해서 옛날에 [1]새인천 풀장이 언제 생긴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쪽 새인천 풀장까지만 이렇게 개발이 돼 있었고, 그 외에는 뭐 개발이 거의 없었죠. 제 기억에, 동양화학 봤을 때는 거기가 거의 종점이었어요. 송도유원지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고, 새인천에서 내리면 청학동 들어가는 길이 있었고 옛날에 그랬었죠. 거의 뭐 그래서 송도유원지까지가 종점이었고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면담자: 그러면 그렇게 큰 공장으로만, 기억하시는데, 혹시 뭐 어른들이나 학교 다니실 때 동양화학에 대해서 들었던 풍문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구술자: 풍문은 그 당시에 첨단 공업 공장이라는 거. 화학 공장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화학 공장이라는 게 드물었잖아. 그리고 그 유독가스가 좀 많이 있었다는 거.

면담자: 유독가스?

구술자: 냄새, 이게 냄새가 나니까, 그 지역만 지나가면, 그래서 옛날 이미지는 별로 안 좋죠.

면담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구술자: 그렇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렸을 때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못 했을 땐데, 악취가 많이 났으니까. 인천에 그래도 거기가 그 당시 첨단 공장이죠. 옛날로 따지면, 인천에도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첨단 공장이 들어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은 했죠. 그래서 약간의 좀,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이런 큰 공장이 그

1) 인천의 옛 수영장 중 하나였던 새인천 풀장은 옥련동 조개 고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다. 동양화학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던 야외 수영장으로, 시민들에게 여름철 인기 있는 놀이터였다.

당시에 첨단이니까, 그렇죠. 지금 따지면 바이오나 반도체 공장이나 마찬가지니까.

면담자: 그러면 그렇게 큰 공장이라는 거를 보셨고 그다음에 매연과 악취라는 거를 들으셨고 하지만 또 이렇게 첨단 공장?

구술자: 그렇죠. 인천에 이런 공장이 있구나.

면담자: 첨단 공장이라고 또 인지하셨는데 혹시 친척분들이나 지인들 중에 종사하셨던 분들 혹시 계셨나요?

구술자: 종사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면담자: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혹시 대학도 여기서 다니셨나요?

구술자: 네.

면담자: 인천에서 다니셨나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떠셨어요? 동양화학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나요?

구술자: 그렇죠. 계속 그냥. 그리고 점점 쇠퇴하는 공장이구나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점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동양화학이 뭔가 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지만, 특히 공장뿐만 아니라 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매립지가 주변에 막 곳곳에 날린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도심지, 옛날에는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면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구술자: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이름이 있던 동양화학이라는 인천의 주축인 공업 단지였는데 그게 없어지는 약간 서운함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시대가 흘러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도심지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공간을 지금의 문화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참 뜻깊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간으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인천 시립미술관 들어오고 박물관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마 또 우리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의 문화 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린 시립미술관도 없었고 인천에. 그리고 또 박물관이 있어도 송도, 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접하기 쉽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 앞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하니까 송도역.

면담자: 그렇습니다.

구술자: 접근성도 있고 해서 오래된 이 공장 터에 또 이렇게 새롭게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접근성도 있고 그래서.

면담자: 혹시 그 매립지에 소다회의 폐기물을 다 매립하고, 그 위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술자: 그게 아시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인하대 정문에 있는 SK 그 건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에 저유구로 오랫동안 쓴 상태에서 한 3년인가 제거 작업을 했잖아요.

면담자: 제거 작업을 했나요?

구술자: 예. 했어요.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생물을 투여해서 [2]기름보, 이렇게 석유, 가스 잡아먹는 미생물이 있대요. 그거를 몇 년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데, 뭐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는 지금 아파트가 섰잖아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정부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섰던 것처럼 거기에도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생활 공간이 생기는데, 유해하면, 허용했겠어요? 그런 거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설마 유해 지역에다 세우지는 않겠죠.

면담자: 그렇길 바랍니다.

구술자: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하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설마 사람한테 유해한 곳에 하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 인천, 특히 미추홀구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착공이 점점 이렇게 딜레이(Delay) 되다 보니까 혹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환경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감수도 하기로 했다며. 동양화학에서 안 하고. 그래서 저기 뭐 [3]송암미술관 부지 같은 것도 이제 그거를 대체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면담자: 네. 혹시 선생님 작업하신 그 사진 중에 동양제철화학과 관련된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구술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사진 연구소거든요. 이 관계된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도시 역사박물관에서 인천에 관련된 사진을 저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연구원들한테 딱 올리니까 한 20여 명의 사진을 던져준다고, 인천에 관련된 한 7꼭지를 저한테 줬거든요. 거기다 관련된 사진들을 이틀 만에 싹 수거해서 보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양화학도 제가 한번 찾아보면은.

면담자: 네. 있으시면.

구술자: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작가 중에 한 분 전시회에 동양 전체 철거하기 바로 전에 그거를 담장 위로 찍어서 사진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

2) 석유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해양 생태계에서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송암미술관은 동양화학이 ①1989.11 서울 종로 수송동에서 개관 → ②1992.10.31 인천 학익동으로 이전 → ③2005.06.13 인천시에 무상 기증 → ④2007.12 인천시립박물관 분관 편입하였다.

면담자: 어느 작가분이?

구술자: 누구 작품인가? 하여튼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담장 너머로 카메라 올려서 사진 찍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시회를 출품하신 분이 있어요.

면담자: 아 그래요?

구술자: 근데 동양화학은 사진작가들이 소재로 많이 썼어요. 거기에 이제 출입이 안 되니까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 주변에서 찍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 출입이 허가된 사람이 들어가서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있고, 어떤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면담자: 선생님은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거는?

구술자: 예. 저는 안 갖고 있고.

면담자: 그러시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천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미추홀구민으로서도 그렇고, 동양화학이 선생님이나 혹시 시민의 입장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술자: 상징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이 공업 도시라는 부분이 인천에서 상당히 중요했었고 산업단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건 없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면담자: 그러시구나.

구술자: 시에다가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역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까.

면담자: 그러면은 1점부터 10점까지. 10점이 너무 만족스럽다. 좋은 이미지다라고 하면 몇 점 정도 될까요? 동양화학은.

구술자: 보는 시각은 틀린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안 좋죠. 공업 단지니까 그것도 공업 단지 중에서도 환경에 가장 위험성이 많은 화학이라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이너스죠. 점수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면담자: 그러시구나.

구술자: 근데 이 지역 경제 발전에서는 큰 역할을 했죠. 동양화학이.

면담자: 제가 오전에 종사자분 사전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한창때는 2천 명이 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엄청, 큰 역할을 했어요. 동양화학이 인천에서 중심 기업으로.

면담자: 근데 아이템도. 저희는 소다회만 듣고 갔었는데 나중에 실리카 겔(silica gel)까지.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술자: 그래서 충청도로 이사 갔잖아요. 거기가 당진? 그래서 이사 가서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인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종사를 못 하게 돼서.

면담자: 네 맞습니다.

구술자: 근데 동양화학만 떠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천의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거쳐야 하는 거죠. 또 도시는 계속 팽창해 가는 거고 거기에 도시에 섞일 수는 없잖아요.

면담자: 맞습니다.

구술자: 동양화학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지금 시멘트 공장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버젓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여기도 엄청나요. 시멘트 먼지가 거기.

면담자: 네.

구술자: 동양제철은 거기는 혼자만의 이거지 뭐, 인천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게 없잖아요?

면담자: 혹시 지역 주민과 교류 같은 것도?

구술자: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유일하게 송암미술관 하나. 개인적으로 지어서 결국은 갈 때 그거 기증하고 갔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기증한 물건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 네? 좀 들려주십시오.

구술자: 제가 송암미술관을 갔을 때 [4]이응노 작품관이 따로 있었어요. 한 40여 점 정도의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도 기증 안 해놨대. 돈 되는 건 다 가져가고, 내가 분명히 1층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서 좌측 쪽에 있었고, 우측이구나, 우측 관인가? 그 관이 따로 이응노 관이라고 크게 돼 있었어요. 이응노 화백. 놀랐어. 나도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한 200호, 100호 되는 작품들이 수두룩했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기증한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인이 있었으니까, 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면담자: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나요?

구술자: 그러니까.

면담자: 정말 아쉽네요.

구술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송암미술관을 인천 시민들이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면담자: 맞습니다. 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술자: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응노 화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작품을 찾는데 인천에 있는 거야. 송암미술관에 그게. 그래서 갔더니, 가서 놀랐죠. 그 미술품들이 이응

4) 이응노(李應魯, 1904년 음력 1월 12일~1989년 1월 10일) 또는 이응로는 대한민국 출신의 프랑스 화가이다.

노 화백의 작품이어요. 이응노 씨라고 하여튼 대단한 유명한, 돌아가신, 80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프랑스에서 돌아가신 작가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 화가죠. 이응노 화백이라고. 그리고 박물관은 새로 세워졌어요. 다른 쪽에 이응노 박물관이라고 따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송암도 보니까 이응노 작품이 한 40여 점 되면 작품 보고 놀랐어. 거의 보기 드문 작품.

면담자: 대여한 게 아닐까요?

구술자: 아니요. 아니요.

면담자: 소유하셨는데 다 가져가셨구나.

구술자: 송암이, 저기 동양화학 회장님이 미술품을 좋아하셨다고.

면담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 송암미술관 앞쪽으로 풀장도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구술자: 예. 새인천 풀장이 있어.

면담자: 예. 그거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구술자: 많이 갔죠.

면담자: 그건 혹시 주민 혜택 같은 게 있었습니까?

구술자: 어렸을 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입장해서 들어갔으니까.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요. 거기 제가 중학교 때까지.

면담자: 입주민한테도 받았어요?

구술자: 예. 입장료 내고 들어가죠.

면담자: 얼마였습니까?

구술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입장료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 앞에 [5]청학 풀장이라든지, 여기 새인천 풀장인데 가격이 똑같았어요. 뭐 청학도 그랬고.

면담자: 언제까지 다니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구술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어요

면담자: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구술자: 66년생이야. 그 새인천 풀장 없어진 지가,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을걸요. 그 전에 계속 있었죠.

면담자: 네. 2009년도에 인천 공장이 문 닫으면서. 그러면 그 앞에 혹시 동양제철화학 사택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술자: 아니, 모르겠어요. 사택은 모르겠고, 아파트, 거주지 같은 빌라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

---

5) 1969년 8월 개장한 청학 풀장은 연수구 청학동 문학산 자락의 우거진 숲속에 자리 잡아 50년간 인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름철 명소였고, 2019년 폐장하였다.

면담자: 네네. 그게 사택이, 그 앞에 있었어요.

구술자: 알죠. 그거는.

면담자: 네 그건 아세요?

구술자: 이게 사택이었구나!

면담자: 네.

구술자: 새인천 풀장도 한때 되게 유명했죠.

면담자: 네 맞습니다. 거기 동양화학에서 90년도에 옥시크린도 생산을 했거든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구술자: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뭐 관심 없어. 관심이 없지.

면담자: 그렇죠. 청소 용품이니까.

구술자: 그렇죠. 거기서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동양화학이.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동양화학이 인천에다가 이렇게 인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맞대서 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러네요.

구술자: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고 송암미술관 자체도 갖고 계셨지만,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고. 저도 인천 토박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송암미술관에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면담자: 개인 미술관인 줄 아셨죠?

구술자: 개인 미술관이었죠. 시에다 기증하기 전에는 개인 미술관이지.

면담자: 그거 오픈을 안 하신 걸로 알고 계셨다고요?

구술자: 예.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응노 화백 같은 경우는 알아서 갔는데, 뭐 그냥 입장료 없이 들어가서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지는 않은,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은 없었던 걸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시에다가 송암미술관 기증하고, 송암미술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게 된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광개토왕비 탁본 뜬 거, 모형 만든 거 그거 하나 유명하죠. 그건 두고 갔더라고, 그거.

면담자: 진짜요?

구술자: 아마 탁본도 있을 거야. 탁본이 있죠. 송암미술관에 탁본도 가져왔구나, 옛날에 탁본도 전시했었어. 이게 모형을 만들어서 탁본도 있었어요. 입구에 딱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는데 가운데 크게 해놨다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수장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증을 안 한 것 같네, 이것도. 동양화학이 이제 떠났는데, 인천에다가 구(區)에, 뭐 한 건 없잖아요? 관계성이 없잖아요? 동양화학과. 근데 지금 그 부지가 일단 지금 당장, 시 부지가 된 거지. 시에 기증했으니까.

면담자: 아니요. 지금 DCRE(Dynamic City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라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하고, 기증한 부분은 시립미술관 만드는 그 부분입니다.

구술자: 다 기증한 게 아니야?

면담자: 네. 지금 아파트, 시티오씨엘(City Ocoel)이 들어서고, 그리고 어디를 기증했냐면 통합 미술관 들어설 부지, 공원화시키는 이 부분은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술자: 아 그렇구나!

면담자: 아파트는 8단지까지.

구술자: 지금 짓고 있는 데가 그거구나. 내가 시에서 받아서 뭐 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구나.

면담자: 네. 아닙니다.

지원자: 근데 폐기물을 밑에 깔아버렸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못 들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공원밖에 안 될.

구술자: 그거밖에 안 되지. 그거 없애려면, 100년 이상은 있어야지, 사라지는 거니까. 참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네.

지원자: 나중에 저희가 이거 기록하고 나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되니까. 같이 또 정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면담자: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여쭤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동양화학이 참, 너무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떠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잡다 쓰레기들은 다 인천에다 떠넘기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가네. 그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계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죠. 이게 시민단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원자: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또 나름 가는 김에 마지막에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측면으로 구청사를 지어주는.

구술자: 이게 그래서, 미추홀구청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야.

지원자: 도청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조사하다 알았는데 송도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양화학에서 이회림 회장님이 거의 많이, 지원해서, 거기 이사장도 하셨고 그래서 나름 본인들은 지역사회에 많이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있는 자료만 갖고 공부한 거지. 들은 게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있고요.

3. 부모님의 용현동·학익동 직장에 대한 기억 (00:25:35~00:59:15)

지원자: 제가 먼저 전화드렸을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부모님의 얘기가 있으셨어요. 아버님은 미군 부대 출신이시고 특수부대 맞죠?

구술자: 부대, 첩보 부대.

지원자: 그리고 어머니는 [6]흥한방직이라고 지금 인주중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근무하셨다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만나셨고, 간략하게.

구술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내가 일찍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녹음이라도 해놨을 텐데 아쉽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다시 학익동 오면서 동아풍림 아파트 오면서, 그 터가 그 자리 근처가 그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연애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미군 부대에 근무하셨어요. [7]532부대. 그러니까는 어머니 얘기로는 532부대를 반을 나눠서, 그러니까는 동일레나운 있잖아요? 방직 공장 자리가 그 옆쪽으로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블록이잖아요? 이게 사거리고 나도 얘기가 들었는데, 나도 잘못 알았는데, 뭐 대충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GS고, 그러면 이게 동아풍림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려있었대. 이쪽이 미군 부대였고, 이쪽이 방직 공장이었대요.

면담자: 딱, 인주중 자리네요.

구술자: 이쪽 방향의 반을 부대가, 이만큼 있었으면, 반을 잘라, 반을 이렇게 하고, 뒤쪽 담 사이로 연애하셨대요. 여기서 미팅을, 소개팅 받은 거지.

면담자: 누구한테 소개팅 받은 거예요?

구술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재밌어.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소개팅으로 해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저는 어디서 낳냐면은, 저기 꽈배기 파는 데 있잖아요? 꽈배기 파는 데,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2층에서 낳았다고.

면담자: 그 건물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그게 모르겠어. 어머니가 이쪽 건물이라고 여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2층 건물이라고 그 당시에 2층 건물이 있었나? 근데 2층에서 낳았대. 그때도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면서 가물가물하시더라고. 여기가 여기인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진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사진이 있어서.

면담자: 제공 좀 해주세요.

구술자: 아버님이 또 선장을 하셨거든요. 군대에서 나오셔서,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났어요. 아버님이 동산고등학교 나오셨는데 그래서 뭘 하셨냐면, 미 해군 통역을 맡았어. 전쟁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로 좀 하셨대. 그래서, 전쟁 시에는 오키나와에 계셨대요. 한

---

6) 일제강점기 제국제마㈜에서 광복 후, 조선제마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1953년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이사장으로 있던 흥한재단에 인수되며 흥한방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74년 화신레나운과 한일방직으로 분리된 후 다시 동일방직에 인수되지만, 섬유공업의 불황이 이어지며 1995년 폐업 후 그 자리에는 동아풍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7) 인천 학익동에는 1960년대까지 Camp Reno라는 이름의 미군 부대가 주둔했고, 532부대는 유사시 전투 부대에 신속하게 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기동 정보 부대였다.

국전쟁 때 그러니까 학도병이 아니지. 따지면 미군으로 갔으니까 미군에서 통역하는 사람으로 갔으니까, 학도병도 아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미 사령관이 추천해 줘서, 그 당시에 지금에 따지면은 저기 어디지? 해양대학교, 부산 해양대학교. 거기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끝마치자마자, 졸업하고 나서 첫 배를 인천에서 월미도 가는 배, 인천에서 월미도, 옛날에 월미도가 섬이었어. 거기 배가 다녔어요. 배로 그래서 그거를 24살 때 선장을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아버님이 백령도 어선도 운전하셨더라고요. 부선장을 하셨고, 근데 아버님이 월미도 배를 타고 계실 때 미군 선박을 들이받았어. 그래서 면허를 3년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정지를 당해서, 그때 다닌 데가 532부대를 다니신 거야. 미군 부대를.

면담자: 그때 만나셨어요?

구술자: 그래서, 배를 못 타잖아요? 3년 동안 면허 정지를 당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시니까 532부대에 들어가고.

지원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들어가셔서요.

구술자: 아버님 말로는, 자기, 주방을 했대.

면담자: 주방이요?

구술자: 요리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532부대 자체가 그러니까, 첩보 대라 그거 하셨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오산부터 다니시다가, 부평에 있는 데 글로도 가시고, 거기서도, 미군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아버님은 항상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 근데 미군들하고 같이 있는데, 항상 까만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면허 정지가 풀렸죠. 해지가 됐고, 지난 3년 되고, 그때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해양대학교 나온 지도 몰랐고, 배를 타신 분인지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자기는 떠나야겠다고.

면담자: 나, 배 타야 돼.

구술자: 그래서 면허하고, 이 사관복 있잖아요. 해군 복장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떠났대. 그때 진짜 일본 회사로 가셔서, 일본 외항선을 타셨어. 그리고 이거를 한 40년 타셨지. 1년에 한 번씩 집에 오시고.

면담자: 어머니 좋아하셨겠네요. 주말 부부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구술자: 그래서, 저 어렸을 때니까, 제가 3살, 4살 때 그때.

지원자: 그러고 굉장히 풍요하게 사셨겠어요?

구술자: 그렇죠.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 회사 다니고 일본 회사를 또 다녀서, 그리고 일본에서 은퇴하신 다음에도, 한국에서 또 계속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백령도 가는 것도 하시고.

면담자: 그러면 한국에서 오셔서는, 은퇴하셔서는 어디서 활동을?

구술자: 은퇴하고서도 배를 타셨죠. 부산에 본사가 있는 데인데, 인천에 지사가 있어서, 인천에서,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까지 배를 타셨어요.

면담자: 배, 적성에 맞으셔.

구술자: 아니, 계속해 달라고, 그래서 아버님은 그 회사가 배를 사잖아요. 그럼 배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뛰어나서 우리나라도 생산하지만, 옛날에는 외국에서 만들었거든. 그럼 그 배를 가져오는 거, 첫 배를 갖고 오는 거야 한국에.

면담자: 탁송 같은 거?

구술자: 그렇죠. 그러다가 은퇴하셨죠. 70 넘으셔서. 그러니까 옛날에 월미도에 사시다가 하면서, 백령도 배도 하시고, 백령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미군 배더라고요. 다 보니까, 배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있어요. 배가 있고, 거기에 선장을 하셨으니까, 하시다가 월미도 배를 타다가, 미군 배를 들이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가 월미도 선도 있고 백령도 가는 것도 있고, 다 있었나 봐요. 거기에 선장으로 그 회사에 선장으로 근무하다가.

면담자: 그 회사 이름은 기억나세요?

구술자: 잘 모르겠어. 하여튼 있겠죠. 찾아보면.

면담자: 땡땡 마리나 이런 거.

구술자: 아니,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한 것 같아.

면담자: 운영하신 거?

구술자: 네. 미국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선장이었고 같이 일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껌둥이더라고. 사진 보니까.

면담자: 어머니는 방적 공장이었나요?

구술자: 네. 순환 방식인데 어머니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몇 년 전에 했는데, 맨날 잊어먹어서, 어머니가 흥한방직에는 55년도에 오셨대요.

면담자: 55년도 입사?

구술자: 예. 55년도 전에, 원래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한일방직을 다녔다가 인천에 흥한방직이 생긴다고 여기서 뽑아가서 왔대. 올 사람? 니네 직급도 올려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흥한방직으로 55년도에, 17살 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자마자, 팀장 같은 걸 맡았나 봐. 그전에 한일방직에서 했으니까, 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진이 돼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흥한방직은 55년 후에 처음 시작할 때니까, 아마 그때 온 것 같아요. 55년? 56년대.

면담자: 그래서 언제까지 근무하신 거예요?

구술자: 꽤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누나 낳을 때까지 계속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다가, 누나 낳으면서.

면담자: 누나분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65년생인데. 근데 그전에 아마 꽤 다녔죠.

면담자: 그러니까 55년도에 갔으면, 거의 10년을 다니셨겠네요.

구술자: 그러네.
면담자: 27살까지. 어느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구술자: 어머니요? 그건 안 물어봤지. 흥한방직이니까 방직 공장이니까, 미싱하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 그거 안 물어봤어. 물어보죠. 뭐, 532부대가 있었다는 거는 저도 늦게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미군이 들어와서 거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일본군이 쓰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를.
면담자: 네.
구술자: 그래서 일본군이 거기를 쓰기 전에, 그전에도, 거기서 방직 이런 개념을 했었다고.
면담자: 왜냐하면 군복을 다 만들어야 하니까요.
구술자: 그래서 그 공장에, 터가. 옷감이 필요하니까.
면담자: 그래서,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하다가, 그 부분에 옛날에 했던 게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의 반을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흥한방직이 생겼다고.
지원자: 거기가 원래 제국제마 주식회사라고, 마로 된 군복을 만든 자리가. 그러니까 37년도에 만들어졌죠.
면담자: 30년대 말, 네 맞습니다.
구술자: 37년도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자리가 흥한방직으로 된 거예요. 인수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직물 쪽이라든지, 따지면 섬유 쪽 지금의 섬유잖아요. 만들어진 거. 그래서, 역사로 따지면 이게 상당히 깊다고 그러더라고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작.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거 동일레나운? 동방방직? 하여튼 있어요. 거기가 인천에, 그래도 규모가 제일 컸고, 방직 공장 중에서도 엄청, 크고, 제일 크죠. 지금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역사로 따지면, 학익동이 제일 먼저 생긴 거더라고. 보니까, 거기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섬유에 관련된 거는, 여기가, 거의 시조라고 보면 되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동양화학 자리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일제 침략기 때 방직 회사, 이런 게 원래 있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도 아까도, 마 정도로 군복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면담자: 네. 맞아요.
구술자: 동양화학 자리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자: 동양화학은 거의 땅을 매립해서, 만든 자리여서 예전에 거기가 뭐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면담자: 거기 강원도 삼척에 있다가 이쪽 동양화학으로 오면서, 땅이 없으니까, 매립을 해서 왔다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지원자: 그러면 어머님은 여공으로 오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그래서 일명 반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장을 했대요. 처음 와서.

면담자: 일을 잘하셨어.

구술자: 인천 사람들 뽑아서 하다 보니까.

면담자: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지원자: 어머님, 아버님 고향은 다 서로 인천이 아닌?

구술자: 아버님은 인천, 어머님은 김포. 아버님은 동산고등학교 나오셨고, 우리 본가는 황해도 해주가 본가였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선주였어.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인천에도 배가 몇 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주인인데 인천 쪽에도 배가 있고, 여기도 상권이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난을 온 게, 인천에 온 거잖아.

면담자: 그러시네요.

구술자: 그래서 다 못 내려오고, 일부만, 아버님하고 아버님의 형님이랑 몇 분만 여기 내려왔어.

면담자: 배도 못 갖고 오시고?

구술자: 그렇죠. 그래서 인천에 내려와서, 여기서 피난을, 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영어를 좀 하셨다는 거는 집안이 좀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통에 통역으로, 미군 통역, 미 해군 통역으로 오키나와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아버님도 보훈 대상이 되는데, 자기는 싫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편한 곳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면담자: 훌륭하시다.

구술자: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면 좋은데 말이야. 나한테도 혜택이 오고 그러잖아? 급급히 반대해서, 연금 신청을 안 했어요.

면담자: 돌아가셨으니까 하셔도 되지 않나요?

구술자: 아버님이 그래서.

면담자: 그런 또 속사정이 있네요.

구술자: 자기 친구들이 다 죽었다고, 자기만 편한 데 살아 있어서. 그게 미안해서 못하겠다고.

면담자: 있으시겠다. 마음의 부채.

지원자: 7세 때까지밖에 학익동에서 안 살았는데, 용현동에서 살 때라든가, 학익동에 들렸을 때, 옛날에 사택들이 되게 많지 않았어요?

구술자: 예.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지원자: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나, 골목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게 좀, 얘기 해주세요.

구술자: 기억이 있는데, 그냥 골목이지 뭐 특별한 건 없지.

면담자: 그래서 놀았던 기억이나?

구술자: 교도소 그 근처에도 사택이 있지 않아요?

면담자: 지금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개발이 되고 있어서.

구술자: 지금 하고 싹 바뀌었지. 어머님하고 한번 가서, 한번 봤는데도, 어머니는 하나도 기억

못하더라고, 다 없어졌고.

면담자: 어머님도 기억 못 하시고?

구술자: 다 바뀌어서 전혀.

면담자: 경인방송국, 그 사택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구술자: 방송이, 동양화학 있는 자리? 거기는 거의 사람이, 옛날에도 들어가기도 힘들었지. 그쪽에 가기는 좀.

면담자: 거의 격리되어있는, 그렇죠?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어요.

구술자: 교도소 근처라도 아마 그쪽 동양화학 쪽으로, 그쪽은 많이 사람들이 잘 안 갔죠. 대부분은,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 다 버스 타고 다녔지. 거기는 주거지가 없으니까, 내린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수영장 가려면, 송도라든지, 그거 하려면 버스를 타고 다 내렸지. 다 그냥 통과하는.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걸어 다녀도 냄새가 악취가 심해서.

면담자: 어느? 어떤 냄새였던지 기억하시나요?

구술자: 옛날에는 엄청나게 독했어.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비 아끼려,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애들이 걸으면, 거기서 코 막고, 이렇게 갈 정도로 심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제재가 없었으니까.

지원자: 근데, 냄새가 안 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술자: 왜 안 나! 엄청 심했지. 엄청 났어요. 냄새가. 거기는, 대부분 버스를 타고 지나가니까, 창문을 열면, 냄새가 들어와서 창문을 닫았어. 거기 지나갈 때는 그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거기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차로. 주거지가 없잖아? 거기는 하나도 내리는 사람이 없고 거의.

면담자: 그냥, 슬프네요.

지원자: 동양화학 뒤쪽에 마을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가본 적 있으세요?

구술자: 거기는, 옛날부터 달동네잖아? 거기가 피난민. 피난민촌이고 그래서, 약간의 우범지대였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거기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많이 그랬지. 거기는 약간 좀 위험하니까.

지원자: 지금은 또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구술자: 옛날에 그랬지. 거기가 약간 우범지대였어. 원래 어렸을 때는 그리고 알겠지만, 거기서 내려오면 바로 사창가가 있었잖아?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그래서, 거기부터는, 다 우범지대에, 그걸 기준으로 아예. 버스 타고 지나만 다니면서. 그래서 그걸로 넘어가면, 동양화학인데 걸어가지 마라. 그쪽 지역은 우범지대로, 이렇게 되게 낙후했고 그거 알겠지만, 개고기도 막 잡고, 막 개도 막 잡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인천에

서 가장 낙후된 도시야. 여기 학익동은 진짜 우범지대였어요.

지원자: 거기 살고 있습니다.

구술자: 지금은, 괜찮아서 개선 사업.

지원자: 아니,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어쨌건 그런 곳이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오버랩(Overlap) 되잖아요? 옛날에, 정말 어땠길래, 이랬을까? 지금은 저렇게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해요.

구술자: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보면, 지금 저기 동부에 있는 저기 달동네, 전도사, 전도관이 있던데, 지금도 거기는 일반인들 사는 데야. 평범한 데야. 거기가. 왜 근데, 하여튼 거기는 우범지대라고 옛날부터, 얘기해서, 다 보면 애들이 가기에 위험한 곳이에요. 사창가를 통해서 가야 하고, 그리고 거기가 산 쪽이라 좀, 그리고 약간 좀 사람이 잘 안 오는 곳이라, 거기에 주거를 다 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빈민촌 같은 개념이 상당히 강했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른들이 여기는 웬만하면 못 들어가게.

면담자: 가지 마라, 그러셨구나.

구술자: 그리고 옛날에는 [8]삥뜯는 거 많았잖아요? 애들 뭐 사러 오면, 애들 협박하면서 주머니 다 털고, 하는 게 많았거든. 거기가 유명했어. 아니 돈 없어도 다 털어. 있는 거라도, 소지품이라도 다 빼니까, 그 정도로도 유명했어. 거기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인천에서 제일 끝, 제일 외진 곳이었어. 거기가 그 외에는 다 산이야, 이제 없어. 그리고 바다였으니까, 그렇지. 너머는 바다가 있었으니까, 막다른 곳. 따지면,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초등,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는 더 들어가죠. 송도유원지 쪽에 있는, 지금 따지면, 유원지 쪽에 찜질방 있는 데, 있잖아요? 찜질방 하나 있어요. 저기 언덕에, 거기 살았었어. 그 근처에 집이 2채인가, 3채밖에 없었어.

면담자: 무슨 찜질방이죠?

구술자: 저기 한증막, 저기 있어요. 하여튼 저기 황토하고 찜질방 있어. 송도갈매기 있는 데. 거기에 집이 3채, 2채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중에 한 채가 내 친구네 집이었어. 근데 걔를 가려면, 그 당시에 [9]6번 버스가 있었고, 6번이나, 100번이었나? 그랬을 거야. 옛날에 거기 가는 게,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 얼마나 외졌는지 모르거든. 그래도 거기는, 아니 그 쪽은, 왜냐하면, 유원지가 있고 그러니까 다 벗어난 곳이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학익동이야, 앞에, 위쪽에, 그쪽에도 차가 막히니까, 그걸로 길이 뚫려서 그 길로 다니면서도,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여기는 우범지대였는데.

지원자: 그 조개 고개에 가는 뒷길?

구술자: 그렇지.

---

8) 주로 불량학생이 사람이 없고 위험한 골목에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9) 인천 송도유원지 B ~ 선학역 간을 운영하였으며 본문에서 언급한 지역의 주요 정거장은 옥련 고개A-옥련여자고등학교-조개 고개-동양화학 B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6월 기준).

지원자: 6번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됐었는지 어디서 타셔서 어떻게 가셨다고?

구술자: 용현시장에서 타서, 동양화학 쪽으로 가서, 거기서 조개 고개로 해서, 송도유원지 쪽으로 빠져, 들어가죠.

면담자: 지금 그 길은 없어졌죠?

구술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 뚫리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그렇지. 옥련터널인가 하여튼 길이 바뀐 것 같아. 길이 아예 그 길이 아예 없어졌어. 지금 거기부터 왜냐하면, 조개 고개로, 청학동으로 갔거든. 여기서 왼쪽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역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 윗길로 그렇게 따지면 옥련여고 앞쪽 길, 그쪽 길이 원래 길이야. 글로 다녔지. 그 길이 맞아. 글로 해서, 넘어 송도역으로 해서, 송도유원지로 들어갔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은 길이, 지금 송도역에서 옥련여고 앞에 길이 옛날 길이에요.

면담자: 옛날 길은 좁잖아요?

구술자: 그 길을 타고, 그 길로 들어가죠. 그리고 청학동 가려면,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

면담자: 없어요? 버스?

구술자: 차가 두 번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또 그 시간이 아니면, 걸어가야 해요. 청학동을 왜 가야 하니까? 청학동도 사람이 많이 살았어.

면담자: 거기 많이 사셨다.

구술자: 청학동은 달걀 도깨비로 유명한 동네야.

지원자: 달걀 도깨비는 또 뭘까요?

구술자: 그 달걀 도깨비가 거기 있대. 거기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도깨비가?

구술자: 거기 청학동에, 그 청학동에 걸어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가 안개가 잘 끼는 곳이야. [10]용담 풀장이 근처에 있잖아요? 옛날 용담 풀장 생겼을 때, 거기가 안개가 많이 껴. 용담 풀장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도 있어. 풀장 자리에 유치원이 서 있지.

지원자: 처음 들어봐요.

구술자: 용담동, 지금 용담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냐면 LF 있잖아요? LF 아웃렛 쪽에, 맞은편 쪽에, 그러니까 학교 쪽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 한전 있잖아? 사거리에 한전 뒤쪽이야. 거기에 용담 풀장이라고 옛날에 유명했어. 거기도 새로 생겨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거기 가려면, 걸어서 들어갔어. 그 버스를 놓치면 없어. 걸어서 가고 했는데, 거기도 근데 거기가 음침해.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옛날부터 여기가 안개가 잘 껴. 지금도 보면, 인천에서 보면 안개 잘 끼는 집이, 거기야. 그래서 지금도 안개 껴요. 거기가 잘.

면담자: 도깨비가 살았다고?

---

10) 용담 풀장은 수영장 뿐만 아니라 낚시터, 보트장, 방갈로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1980년대 연수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문을 닫았다.

구술자: 도깨비 벌룬(Ballon)이 그거잖아요? 사람 걸어가면 발에 부딪혀서, 점점 커져서 사람을 덮친다는 거야. 이게 도깨비 전설인데.

면담자: 근데 왜 계란이에요?

구술자: 달걀처럼 조그마한 게, 발에 계속 부딪혀 그럼 점점 더 커져. 그래서 이게, 사람을 덮쳐서. 청학동 쪽은 너무 외져서. 청학동 쪽은 진짜 여기는 사람, 몇 군데 안 살았거든. 근데 우리 집에 세를 들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청학동에 살던 부인, 여기 세를 들고 사셨어. 그 아주머니가 겪은 얘기를 해준 거야. 새벽에 집에 가다가,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친척 집에 가다가, 달걀 도깨비 만나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원자: 재밌다.

구술자: 어렸을 때니까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생각했죠. 거긴 안가야 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아무튼 보면, 여기 풀장 자리가 있어요. 여기 유치원이 생겼고.

면담자: [지원자를 바라보며] 선생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지원자: 저는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구술자: 그래서 이 532부대가 하여튼 있었다는데, 많이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정보부 첩보 부대라 규모가 엄청 큰데요. 왜냐하면, 이게 532부대가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 이게. 그게, 인하대학교가 미군 부대 주둔했던 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를, 인하대학교랑 SK 거기가. 아니 SK 말고 미군 부대가 여기 많았는데. 거기에 첩보대는 따로 있었고 미군 부대 중에서 그리고 알겠지만, 저유고 이것도 미군 부대였잖아.

면담자: 어디요? 지금 SK 아파트?

구술자: SK 아파트 자리도 옛날에 이게 지금 유공되기 전에는 기름을 저장하는 저유고였지.

면담자: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억은 있으세요?

구술자: 아버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기름 많이 빼먹었다는 거. 그 얘기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많이, 지인 통해 많이 빼먹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친척 중에 한 분이 거기 출신이에요. 2차전 할 때 했던 우리 특수부대 있잖아요. 저기 팔미도 등대에 불 켰던데. 그거 출신이야. 그래서 거기 출신이라, 우리나라에 보면 중앙정보부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했던 분이 있거든요.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이 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옛날에 거기 SK 저유고, 그리고 옛날에 거기가 또 탱크 부대까지 같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유고가 기름통이 있는 이유가, 탱크 부대가 있어서. 지금은 또 없어졌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거기 탱크 부대 그랬어요.

면담자: 본 적은 있으세요?

구술자: 없는데 거기는 못 가지. 못 보지. 왜냐하면, 산속에 있었어. 옛날에 거기 산속이야. 보이지가 않아.

지원자: 문학산이나, 연경산에서 바라봤던 모습 중에 거의 민둥산이었나요? 지금 저희 동양화

학은 연경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구술자: 옛날에 거기가, 진짜 거의 민둥산이었지. 완전 민둥산이, 나무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된 거야.

지원자: 저유고 같은 거 보셨어요?

구술자: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지. 지금도 있지 않나? 자리가 있던 것 같은데.

지원자: 사이트는 있는데.

구술자: 그래요. 원래 있었어요.

지원자: 멀리서 보일 정도면 얼마나?

구술자: 아니, 동양화학에도 있어요. 이거 맞아. 동양화학 뒤쪽에 있었어.

면담자: 뒤쪽에 탱크가 있었어요?

구술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철거했던데 그거는. 공사 이거 이전하기 전에,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

지원자: 저는 산에만 있고 그러니까, 한 7군데가 있었다고 저희는 공부할 때도 들었는데 동양화학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구술자: 안에 있었어. 안에. 이거 뒤쪽으로 서너 개 정도가 있었어요. 내가 본 게. 한 서너 개 정도 보였어.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기름통이 기름 탱크가.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양화학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공장이고, 다 부대가 많으니까, 부대가 워낙 보안이, 앞에 경비들이, 보안이 군대랑 똑같이 서잖아. 거기는 다 철조망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담장도 가려서, 잘 안 보여, 높은 데서 봐야, 보일 정도로 했으니까. 이게 보안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옛날에 동양화학도, 저유고도 마찬가지고. 저유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SK에 야구 때문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야구장을, 거기다 경기장을 졌거든, 아파트 생기기 전에.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만 해도 기름통이 그대로 다 있었죠. 거기는 SK가 인수하면서, 그대로 유공 통이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일부 축구장 짓고, 야구장 지었으니까, 그 안에. 그래서 보다가, 이게 철거되는 것까지 다 보지 않았겠어?

면담자: 과정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구술자: 많이,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우리 야구장만 찍게 해주고, 여기는 웬만하면 다 찍지 못하게 하고, 그때만 해도, 땅만 파면 기름이니까, 다, 땅이.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해서, 개발을 못 했잖아? 그러더니 한 1, 2년 걸린다고 막 그러더니만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졌어. 아파트를 짓대. 금방 그래서 해결이 다 됐나? 이제.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구술자: 동양화학도 보면 참 못된 기업이야. 따지면, 어쨌든 화학 공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도 하고, 또 폐수를 어떻게 해? 그래서 저, 지방으로 간 게 다행인가?

싶기도. 근데 거기도 머리를 잘 쓴 거야. 빨리 빠져나온 거지. 더 늦게 빠져나갔으면 완전히 골로 갈 뻔했지. 지금 나갔으면 완전히 골로 가고, 완전히 회사 망했지.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도 벌써 센스 있게 다, 시장이랑 사바사바해서 싹, 뜬 거.

면담자: 2009년에. 시기가 참 절묘한 것 같아요.

구술자: 이런 일이 다, 미리 원래 기업들이 다, 그래요. 미리 다, 알아보고, 다, 미리 준비하죠.

4. 용현동·학익동 사진에 대하여 (00:59:16~01:10:58)

지원자: 그거라도 정말 야유회를 가신 거예요. 야유회 갔던 사진이라도? 왜냐하면, 그 시절에 누가 이런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어디를 갔다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구술자: 옷도 잘 입고 그 당시에 방직 공장은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장, 그러니까 다 세련됐어.

면담자: 궁금하다. 세련됐다는 기준이 뭔지? 사진 제공. 사진!

구술자: 정장.

면담자: 네. 야유회에 갔는데 정장 입고 가고 막.

지원자: 새롭다. 그런 사진. 어머니가 얘기한 옛 사진 중에 저희가.

구술자: 인천 사진도 있긴 했는데, 문학산이라든지.

면담자: 네. 그런 사진 좋습니다.

지원자: 선생님도 사진을 하시잖아요? 사진을 하게 된 계기가 어쨌건 사진기가 선생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중학교 때부터 동아리 하셨다고?

구술자: 그전에, 했었던.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이 외부 사진을 좋아하셔서 찍는 것을. 이런 것도 나중에 계기가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님이 방직 공장을 그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셨대. 결혼하기 전에. 근데 어디서 일하셨냐 하면, 사진관에서, 일하셨어요. 그게 저기 배다리 있는.

면담자: 옛날에?

구술자: [11]동방스튜디오. 거기에서, 일하셨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잡(Job)이 되어 지금은 없어졌잖아? 동방스튜디오는, 역사적으로 인천에서 기록을 남겼어야 되는, 사진관인데.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사람 중에서, 동방스튜디오에 앉아서 졸업사진 안 찍는 사람들이 거의 적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다, 다 찍었어. 인천시에 있는 학교들을 다 동방스튜디오, 옛날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다 후에 사진관이 몇 개 더 생겨서. 경쟁해서 찍었지.

---

11) 인천 배다리 싸리재 모퉁이에 있던 '동방스튜디오'는 1960년대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사진관입니다. 과거 개항장을 뺏긴 조선인들이 모여 형성된 배다리 마을의 역사를 함께한 곳으로, 싸리재 고개를 오가는 연인들이 기념사진을 찍던 추억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동방스튜디오에서 사진 안 찍는 인천 사람들이 없답니다. 거기가 그 정도의, 인천에서 모든 학교 사진을 거기서 다 찍었어. 그리고 인천에서, 이런 인물 사진 거의 12)허바허바사장이, 13) 서울의 허바허바사장 급이었어요. 제일 잘 찍는 곳이었어요.

면담자: 많이 찍으시니까. 그렇죠?

구술자: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인천에서 거의 사진관 쪽이고, 거의 오래되고 유명한 사진관이었죠.

지원자: 근데 어머님 호흡기는 괜찮으셨어요? 방직회사, 지금 건강하세요?

면담자: 괜찮으세요.

지원자: 선생님, 어릴 때 사진도 많을 것 같은데?

구술자: 네. 사진도 많아.

지원자: 좀 저희도, 사진 좀 한 번 쫙 펼쳐놓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구술자: 네.

면담자: 그렇지 않아도, 번거로우실 텐데.

구술자: 아버님 앨범을 한번 찾아봐야지.

면담자: 네. 감사합니다.

구술자: 옛날 아버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진.

면담자: 다 갖고 계시네.

구술자: 거기, 사진이 있더라고. 날짜하고 내용 적어놓은 것도 있고 안 적어놓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다 적잖아.

면담자: 그 옛날에, 저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저는 안 적었어.

구술자: 그래서 아버님이, 51년도에 사진도 있고. 51년도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군이잖아요? 군대잖아. 그래서 이제 갈 때. 날짜 보니까 51년이더라고. 근데 부대 사진도 있고, 그거 보고 도망 가.

지원자: 부대 사진을 보면서 뒤에 배경이 좀 보이면 그걸로 유추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중요한, 정말 기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술자: 사실, 제가 명함도 드렸지만, 우리가 한국 고(古)사진 연구회라고, 또 부설로 만들었어요.

지원자: 이렇게 한자로 써주시면, 제가 잘 모르지만 고(古)사진 연구회.

---

12) 서울의 허바허바사장에서 일하던 송학선사장은 1963년, 인천 경동사거리에 인천 허바허바사장을 개업했다. 이후 서울 허바허바사장과 상표권 분쟁이 걸려 1989년 허바허바사장 인천이라는 상표를 따로 출원했으나 1990년 거절 결정이 났고 2000년 폐업했다.

13) 일본 오리엔탈사진학교에서 사진을 배운 창업주가 1943년 지금의 을지로2가에 해당하는 황금정(黃金町) 입구에서 '허바허바사장'을 연 것이 그 시작이다. 사진관의 상호는 Hubba-hubba의 '빨리빨리'를 뜻하는 영어에서, 혹은 진주만을 뜻하는 '펄하버(Pearl Hzrbor)'에서 왔다고도 한다. 허바허바사장의 '사장(寫:베낄사,場:마당장)'은 '보스'가 아니라 '사진관'을 뜻한다. 현재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술자: 이거를 원래 인천에 한국 고(古)사진 연구소라고, 10년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거든. 법인이. 이걸 내가 부활을 시킨 거야.

구술자: 옛날 사진을 통해서 역사를 고집하는 건데, 사진의 시작은 이거. 여튼, 여기에서 우리나라 2차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은 1880년경 사진이 돼서, 거의 한 1900년대 초반부터 사진이, 우리나라를 찍은 최초의 사진들이 다 인천 사진이거든.

면담자: 그렇죠. 인천 개항이.

구술자: 인천 사진이, 제일 빨라.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관이 1907년도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역사야. 이미 1800년도에 있었어요. 1890 몇 연도에 있었고 확실한 보증인이 된 거는, 조선 후기 1901년도에 일본에서 [14]출판된 책이 있어요. 사진집이 있는데, 1901년도에 거기에 사진관이 하나 나와. 한글로 된 사진관이, 인천이야. 그러면은 1901년도에 출판이 됐으면 그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나라가 1907년에 서울에서, 처음 사진관이 만들어졌다는 게 잘못된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고지된 걸 갖고 있어요.

일본의 세계풍속사진첩(世界風俗寫眞帖, 1901)에 실린 한국 사진관의 모습으로, 사진의 설명에는 '우리 일행이 가마를 타고 통과했던 황궁으로 가는 큰길'이라 붙어 있다.

면담자: 그런 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14) 일본 세계풍속사진첩(世界風俗寫眞帖, 1901)의 24번째 도판으로 같은 면에 '한국의 건물' 사진 4장이 함께 실려 있는데 그중의 하나이다. 이 사진의 원출처로 추정되는 것은 독일의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이 낸 'Völkerkunde'(민족학)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1885년에 초판이, 1888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조선일보 1983년 11월 3일 자에서 이규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독일 최초의 장갑순양함인 비스마르크후작(Fürst Bismarck)호가 1903년(또는 1902년), 제물포에 왔을 때 기관장인 칼 빌케가 이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1983년 당시, 사업상 한국을 방문한 빌케의 손자가 이 사진을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 발견하여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사진의 설명에는 '우리 일행이 가마를 타고 통과했던 황궁으로 가는 큰길'이라 붙어 있었다는데 아마도 칼 빌케가 프리드리히 라첼의 그 책에서 오려낸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이 사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종종 '한국인이 연 최초의 사진관'으로 소개되기 때문이다. 이 사진관은 간판에 한글을 쓴 점이나 전형적인 한국 거리 모습 등으로 보아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이 주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그 후보자는 김규진(1868~1933)이 아니면 황철(1864~1930)일 수도 있다. 황철은 1882년에 중국에서 사진 기재를 사 왔으며 1895년 6월에 포천군수로 부임하기 전까지 경성에서 촬영소, 혹은 사진관을 운영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시기의 지운영(1852~1935)이나 김용원(1842~1896)도 빼놓을 수 없다. 지운영은 한국인 최초로 고종의 사진을 촬영했고, 김용원은 일본에서 사진술을 배운 뒤 1883년에 서울 저동에 촬영국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구술자: 근데 알릴 필요가 없는 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 인천이야. 사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이, 다 인천이고, 외국인이 찍은 사진. 그래서 알겠지만, 우리가 신미양요 때 미군이 우리를 찍었거든, 그 사진이 있잖아?

면담자: 네.

구술자: 10명 양력 대 사진이야. 인천을 찍은 거. 첫 사람이 인천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사진을, 또 발굴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고증.

면담자: 인천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구술자: 이거는 원래 내가, 내 전공은 내가 원래 파인아트(Fine art)라 내가 그 부분을 안 했거든요. 근데.

면담자: 파인아트(Fine art)가 뭔지요?

구술자: 예술, 사진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 사진 쪽이 아니고 그렇죠? 작품 쪽으로 가는 쪽인데.

면담자: 풍경 사진을 찍으시고.

구술자: 그리고 주례 선생님께서 이 고(古)사진 연구소를 만든 거야. 인천에다가. 그리고 원래 서울에 최인지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사진에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고문을 해주고, 인천에 이건 있어야 된다. 인천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옛날 사진 경우는 다른 데서 못한다. 그래서 인천에 설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인천에 사진과가 재능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교수님이 만든 거야. 근데 그분이, 제 주례 선생님이시거든. 그래서 만들었는데 나보고 좀 해달라는 거야. 같이. 전공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회가 흐지부지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우리 연구원들, 우리는 지방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고(古) 사진 쪽에 관심 있는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덟 분이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여덟 분을 거기로 보냈지. 그래서 약간 활성화 좀 시켜놨는데, 이게 주축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면담자: 그쵸?

구술자: 그래서 완전히 흐지부지된 거여서, 제가 좀 한가해져서, 올해부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부활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부활을 시키면서 슬슬 이제 그 부분을, 작업을.

면담자: 아카이빙(Archiving)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구술자: 이제 슬슬 해야죠. 인천 전 지역으로 한번 좀.

면담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구술자: 저는,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 되는 거고. 알아서.

면담자: 원래 다 그렇죠. 연구회는.

구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면담자: 그래도 좀 재원을 받으시면 좋은데.

구술자: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보면, 인천에 사진 동아리가 한 300여 개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중에 극점까지 와 있으니까, 우리는, 150명 정도. 그러니까 인천 전 지역에 분포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면서 옛날 사진, 어르신들 사진, 찾아서 갖고 와요.

지원자: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도시변화 옛사진 공모전’ 팜플렛(Pamphlet)을 건네며] 저희도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챙겨왔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사진 공모전 같은 거,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이.

지원자: 동양제철화학, 지금 이거랑, 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참여하시는 게 이거고요. 지금 이거에 연계돼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학산문화원에서도 이걸 다, 오픈할 거예요. 저희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도움이 되면 서로.

구술자: 지났네. 벌써 했네요?

면담자: 하고있는 거예요. 10월까지.

구술자: 하고 있구나!

지원자: 그러니까 사진 한 장당, 2만 원짜리 상품권.

구술자: 네.

지원자: 근데 그렇게 해서 모여지면, 선생님도 언젠가 거기에서 필요한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미추홀에는 아카이브(Archive)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학산문화원이 운영하는 거기에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코웍(Co-work)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구술자: 요 면까지 포함이네.

지원자: 네. 그래서 선생님도 용현동에 사셨던, 이 용현동 소재 사진을 을 내세요. 내시면 2만 원입니다. 장당.

구술자: 우리 연구원들에게 얘기할게요. 참여 좀 하라고.

면담자: 그 사진보다 옛사진이 더.

구술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古)사진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찾기 쉽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사진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냥.

면담자: 이렇게 자료도 실증 자료가 되니까.

구술자: 그리고 요새는 또 AI가 많아서, 왜곡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지금 정리 안 해놓으면, AI 때문에 역사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면담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구술자: 시간이 없어. 시간이 벌써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대한 이런 사실적인 부분들이 다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면담자: 네.

구술자: 그렇잖아요?

면담자: 속도가 너무 빨라요.

구술자: 이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돼요. 진짜, 어려울 것 같네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전문가들이니까. 내가, 그래서 연구원 우리가, 연구소도 내가 갑자기 부활시켰어요.

면담자: 마음이 급해지셨어.

구술자: 우리는 파인아트(Fine art)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만들어내니까, 이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또 우리 은사님이 옛날에 하셨던 거니까. 다시 또 이렇게 흐지부지된 게, 없어진 거고, 다시 인천에서 부활시킬 필요도 있네.

지원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면담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술자: 아, 예.

면담자: 저희보다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구술자: 하여튼 내가 이거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계속 같이 교류를 하죠. 어차피 우리 여기 그래도 인천에 사진하시는 분들이, 경력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리고 거의 리더급들이에요. 다, 리더가, 있으니까, 빠르더라고요. 이번에도 도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박물관에서 갑자기 급하다고, 좀 옛날 사진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이틀인가? 다 모이더라고요. 한 20명이 작품을 주더라고요.

면담자: 인적 파워(Power)가 대단하십니다.

구술자: 그분들은 뭐, 돈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만 넣어주면 돼.

면담자: 그렇죠. 추천, 발전.

구술자: 왜냐하면, 사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잡(Job)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제 여가 시간. 은퇴하고 여가에 하는 분이기 때문에.

면담자: 생업으로 하시지 않으시네요.

구술자: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으신 분들이, 다 사진 찍을 만하고.

면담자: 맞습니다. 그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있어야지, 사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술자: 예술이 다 그렇잖아요?

면담자: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